

보도시점 2024. 8. 27.(화) 11:00 이후 (2024. 8. 27.(화) 석간)
(국무회의 의결 후)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3,661억원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되었다.

* <'21> 35.6 → <'22> 36.6 → <'23> 34.95 → <'24> 33.7 → <'25안> 35.4조원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모성보호: 4조 225억(+1조 5,256억),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1,571억) 등

②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용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 노동약자지원: 160억(신설), 대지급금: 5,293억(+546억),
체불청산지원용자: 704억(+302억), 장애인고용예산: 9,372억(+319억) 등

③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 *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22억(+291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억(+1,694억),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2,979억(+538억)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72억 등

④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 *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325억(+69억) E-9 특화훈련: 216억(+72억), 외국인근로자안전서포트: 24억
- * 폭염설비지원(+180억), 안전동행지원(+100억) 등 산재예방 총 1.3조 투자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세부적인 사항은 이하 내용 참고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업대섭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남성욱 (044-202-7034)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 ◇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조 6,836억원(+5%) 증액
 - * <'21> 35.6 → <'22> 36.6 → <'23> 34.95 → <'24> 33.7 → <'25안> 35.4조원
- ◇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효과성 제고 등 지출 효율화 선행 → 핵심과제 투자 위한 재원 마련
- ◇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약자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중점 투자

I. 총지출

- (총괄) 35조 3,661억원, '24년 대비 1조 6,836억원(5.0%)증가
- (일반회계) 5조 1,559억원, '24년 대비 253억원(0.5%) 증가
- (특별회계) 6,080억원, '24년 대비 765억원(11.2%) 감소
- (기금) 29조 6,022억원, '24년 대비 1조 7,348억원(6.2%) 증가

【 2025년 고용노동부 정부 예산안(단위: 억원) 】

회계·기금별	'24 본(A)	'25년안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 총지출(a+b)	336,825	353,661	16,836	5.0
- 예산지출(a)	58,152	57,639	△512	△0.9
· 일반회계	51,306	51,559	253	0.5
· 특별회계	6,846	6,080	△765	△11.2
- 기금지출(b)	278,673	296,022	17,348	6.2
· 고용보험	164,058	178,116	14,058	8.6
· 산재보험	98,222	100,245	2,023	2.1
· 장애인	9,053	9,372	319	3.5
· 임금채권	5,431	6,285	854	15.7
· 근로복지	1,908	2,004	96	5.0

II. 재정투자 방향

☆ 초저출생·고령화

→ 청년·여성·중장년·외국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한 이중구조, 격차 발생

→ 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 강화>

<주요 증액 분야>

①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사업명	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모성보호 육아지원	4조 225억 (+1조5,256억)	· 육아휴직급여(+1조 4,161억) → 급여 인상(150만→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160만)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845억, 상한액 200→220만) · 배우자출산휴가급여(+158억, 5→20일), 난임치료휴가급여(+37억)
고용안정 장려금	3,909억 (+1,571억)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1,560억) → 대체인력지원금(+1,050억,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월 80→120만원 등) 업무분담지원금(+328억,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 노동약자 보호 강화

사업명	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노동약자 지원	160억 (신설)	·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44억, 이음센터 6→ 10개소, 프로그램 확충) · 일터개선 지원(21억, 일터개선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 · 상생·복지 지원(66억,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 불법·부당 관행 개선 지원(28억,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 등)
대지급금	5,293억 (+546억)	· 도산대지급금 +1,500명, 간이대지급금 +15,200명
체불청산 지원용자	704억 (+302억)	· 근로자 용자 +2,800명, 사업주 용자 +500명
장애인 고용기금	9,372억 (+319억)	· 장애인고용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장려금 +540억 등)

③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업명	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청년고용 지원인프라	1,122억 (+291억)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200억) ·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103억, 각 +10개교)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7,772억 (+1,195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5.5만명): 취업애로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유형 신설(4.5만명):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가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최대 480만원 지원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지원	2,979억 (+538억)	· 청년 일경험 지원(+469억, 4.8 → 5.8만명(+1만명)) · 청년 도전 지원 및 직장적응 지원(+53억, 구직단념 청년 등)
그 외		· 청년 미래플러스(+20억, 산업특화 취업·성장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신설(+72억, 사업주훈련 內) · 청년 취업·정착 지원패키지(+75억), 미래유망고졸인재양성(+11억) 등

④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이 전문성을 토대로 역동경제의 일꾼으로 보다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52억, 신규 5개과)·신중년 특화과정(+6억),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357억), 중장년인턴제(+36억, 신설), 내일센터(+3개) 확충 등

④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에 발맞춰,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 선발지원(+39억),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20억), 애로해소지원(+10억), 취업자 관리(+12억), E-9특화훈련(+74억), 외국인근로자안전서포트(+24억) 등

⑤ 고용안전망 본연의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산재급여(+1,282억), 두루누리(+476억), 구직급여(+27억)·재취업성공수당(+617억)
* 폭염설비(+180억), 안전동행지원(+100억) 등 산재예방 총 1.3조 투자

Ⅲ. 주요 편성 내용

[1] “일할 맛 나는 일터” 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저출생 대책】

- **(지원수준 대폭 확대)**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휴가·휴직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 225억(+1조 5,256억)

- 육아휴직급여: 3조 4,030억(+1조 4,161억)

↳ 급여 상한 인상(월 150만원 → 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

단기육아휴직·통합신청·사후지급금 폐지, 6+6 부모맞돌봄 특례증가, 기간연장 등 소요 반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35억(+845억,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상한 200→220만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42억(+158억, 지원기간 5 → 20일 확대)

- 난임치료휴가급여: 74억(+37억), 출산전후휴가급여: 3,525억(+55억), 유산사산휴가급여(19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8억(+41억)

- **(사용여건 개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대체인력지원금(출산휴가+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 1,194억(+1,050억)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사용 가능, 지원금 80→120만원 인상

✓업무분담지원금: 352억(+328억, 6천명→25천명,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사업주 부담 경감)**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대상 확대 등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위한 사업주 지원 확대

✓육아휴직지원금: 1,236억(+60억, 2.3만명 → 2.5만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554억(+121억, +1천명, 자녀연령 8→12세, 최대 2→3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358억(+19억), 유연근무장려금: 118억(+22억)

✓^{NEW}직장어린이집지원 內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 신설: 13억

2.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 【약자 보호】

- **(노동약자 사업 신설)** 맞춤형 인프라 확충, 일터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사업 등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 신설

✓^{NEW}노동약자지원: 160억(신설) ※ 既 운영사업도 노동약자 지원에 맞도록 개편
 ↳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44억): 이음센터(6→10개소), ^{NEW}분쟁조정협의회 신설 및 운영, 특화프로그램 확대(노무제공자 법률·세무 교육,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지원 프로그램)
 일터개선 지원(21억): 노무제공자 일터개선지원(+8개소), 실태조사 및 연구(+1억) 등
 불법·부당관행 개선지원(28억): ^{NEW}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지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지원 등
 상생·복지 지원(66억,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NEW}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예방: 4억(산재기금 內)

- **(권리구제 확대)** 임금체불, 생계곤란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 위한 회복지원 병행

✓대지급금: 5,293억, 10.5만명(+546억, 도산대지급금 +15백명, 간이대지급금 +152백명)
 ✓체불청산지원융자: 704억, 92백명(+302억, 근로자 +28백명, 사업주 +5백명)
 ✓생활안정자금융자: 915억(+30억), ✓근로자건강센터: 230억(+9억, 트라우마센터 +1개소)

- **(공정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일터 조성 위한 컨설팅 확대 +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 적극 지원

✓^{NEW}일터혁신 상생컨설팅: 408억(7개 컨설팅 통합 → 효과성 높은 양질의 컨설팅 제공)
 ↳ 일터혁신, 공정채용, NCS, 유연근무,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등 7개 컨설팅 통합
 ✓업종별임금체계개편컨설팅: 48억(3개 업종)
 ✓^{NEW}채용절차관리 지원: 17억, 4천개소(민간솔루션 이용), ^{NEW}기업교육: 4억, 모니터링: 2억(+1.6억)
 ✓^{NEW}SI근로감독관(과기부 공모 예산으로 개발 中) ^{NEW}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지원: 9억

-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 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61억(+20억, +1개소),
 ✓대중소상생아카데미: 122억(100개),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지원: 140억(2개 산업)
 ✓상생복지 지원: 66억(+16억), ✓근로복지기금지원(공동기금): 290억(+68억, +68개소)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사업: 130억(+12억, 750개소(+150개소))

3.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산업안전】

- **(중소 안전역량 강화)**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706억(+22억, 37,000개소(+1만개소))
-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및 민간기술지도: 646억(+75억, 39만회)
- ✓ **NEW**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9억(업종별 협·단체 컨소시엄 대상 안전공모 사업)
- ✓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126억(400명), 산재예방시설용자: 4,588억(26백개소)

- **(위험요인 제거)**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확대

- ✓ 안전동행지원: 3,320억(+100억, 4,148개소(+123개소)), 환기장치 지원(+20억, +40개소)
- ✓ **NEW**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180억(54백개소),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 716억

- **(화학사고 예방)**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투자 확대

- ✓ **NEW**빅데이터·AI 활용 산재예방: 5억, **NEW**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12억, 5백개소
- ✓ **NEW**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 24억, 중소기업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10억(+5억, +2천개소)

- **(복귀지원)**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 맞춤형 재활서비스, 대체인력 등을 통합 제공

-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116억, 합병증 등 예방관리: 602억(8.1만명)
- 사회심리재활지원: 25억(8천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32억(14백명), 요양관리: 98억
- ✓ 산재보험급여: 8조 43억(+1,282억),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43억(15백명)

-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 지속 확충, 노후시설 현대화 등 산재병원을 선도형 공공병원으로 육성

- ✓ 산재병원 지원: 796억(+469억, 울산산재병원 건립, 노후시설·의료장비 현대화 등)
- ✓ 근로자건강보호: 453억(+9억, 트라우마센터 +1개소)
-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42억(+40억),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127억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ALMP:Active Labor Market Policy)

1.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 **(통합 제공)**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 통합 + 프로그램 강화 → 구직자 편의성 + 만족도 ↑

✓직업안정기관 운영: 551억(+19억, 통합네트워크 2개소 추가,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취약계층 취업촉진: 92억(+30억, 구직자 대상 취업역량·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강화)

- **(디지털 강화)** AI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 제공(매칭률 ↑), 고용24 등 고용전산망 개선 및 안정성 강화

✓일자리정보플랫폼 시고용서비스 지원: 75억(국가일자리플랫폼, 일자리매칭시스템 등 운영),
✓디지털기반 고용서비스인프라: 60억(+3억), ✓고용전산망관리: 392억(+18억, 장애시스템 보강 등)
✓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구축: 109억(+52억,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 **(고용안전망 고도화)**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위한 본연의 기능 강화 노력 지속

✓구직급여: 10조 9,171억(+27억), 조기재취업수당: 5,255억(+617억)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8,851억(+476억) ✓국민취업지원: 8,457억(지원인원 30.5만명)

2.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신속 공급

- **(수요 뒷받침)**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

✓K-하이테크트레이닝: 4,781억(+49억, 4.5만명), 하이테크 과정: 122억(+20억, 24백명)
✓폴리텍 반도체·신산업 학과 신설: 195억(반도체 학과 3개과, 신산업 학과 3개과)
✓반도체종합교육시설 구축: 12억(+10억), 전통산업 고도화 학과 개편: 206억(+52억)

- **(중소 특화 훈련)** 여건상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 신설

✓^{NEW}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 116억(1만개소, 집체훈련에 대해 훈련바우처 지원)
✓^{NEW}최신원격훈련: 220억(15.7만명), ✓^{NEW}탄력운영제: 203억(17만명, 훈련절차 간소화)

- **(지역·산업 현안 대응)**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현안 대응 지원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140억(+20억, +5개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641억
 ✓산업·일자리전환지원: 112억, ^{NEW}산업전환고용안정영향평가: 0.6억, ✓지역·산업맞춤형훈련: 190억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229억(+129억), ✓^{NEW}폴리텍 뿌리산업 특화 교육센터: 90억(3개소)

- **(관리 강화)** 지역·산업별 인력수급 현장 수요 적시 파악, 자격검정 운영 디지털·효율화 등 직업훈련체계 관리 강화

✓고용영향평가: 13억(+3억), ✓신기술인력수급분석지원: 9억,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98억(+14억)
 ✓자격검정사업: 1,375억(+45억, 디지털국가자격시험장 3개소 확충, 출제 고도화 등)

3.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 강화

- **(All Care)** 재학·졸업단계부터 훈련·일자리 매칭 등 통해 구직단념 예방, 장기미취업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대학재학생맞춤형: 463억(+74억, +10개교), 고교재학생맞춤형: 91억(+29억, +10개교)
 ✓^{NEW}졸업생특화프로그램: 200억(120개교), ^{NEW}직장적응지원: 46억(33백명, 산단특화 온보딩)
 ✓청년도전지원: 717억(6.2만명, 도전지원+성장프로젝트 통합),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129억(+11억)
 ✓^{NEW}청년미래플러스: 20억(산업별 협회 등이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이 산업 내 전문가로 성장토록 지원)

- **(일경험 확대)** 직무경험 중시 채용 트렌드 고려,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계속 확대

✓청년일경험지원: 2,187억 (+469억, +1만명, 총 5.8만명)

- **(빈일자리 매칭)**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과 취업애로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억(+1,694억, 10만명), 청년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료지원: 242억
 ↳ ^{NEW}2유형 신설: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1년간) 지원 +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
 ✓^{NEW}청년취업정착패키지: 75억(5개소, 자치단체 공모 통해 청년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NEW}국민취업지원 빈일자리 특화 훈련: 228억(국민취업지원 통해 빈일자리 취업 시 훈련·취업수당 추가지원)
 ✓^{NEW}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23억, ✓^{NEW}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72억(200명)
 ✓해외취업지원: ^{NEW}연수생 숙박비(14억), ^{NEW}국내복귀자 지원(10억, 컨설팅 및 취업매칭) 신설

②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강화

○ (계속고용)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 마련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57억(1.1만명) + 요건 완화(정년도달 근로자의 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원)

○ (재취업 지원)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NEW}중장년인턴제: 36억(910명),

✓^{NEW}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52억(5개과), 신중년 특화과정: 55억(+6억)

✓중장년내일패키지: 71억(+6억, +4천명), ✓중장년내일센터: 103억(+20억, +3개소)

③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지원한도 상향, 10억→15억) 등 일자리 확대 사업 보장

✓장애인고용장려금: 3,774억(+540억, 76만명(+13만명)), 근로지원인: 2,470억(+45억)

✓^{NEW}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30억(10개소)

○ (취업역량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및 디지털훈련센터 확충

✓취업성공패키지: 265억(+18억, 14천명(+1천명)),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3개소)

④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

○ (숙련인력 양성)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

✓E-9 특화훈련: 216억(+72억, +2천명), ✓^{NEW}폴리텍외국인근로자한국어훈련: 5.7억(50명)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지원: 124억, ✓비전문외국인특화훈련센터: 20억(+2억, +5개)

○ (고용관리 강화) 상담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 확대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 92억(+20억), 선발: 163억(+39억), 사업장 내 애로해소지원: 40억(+10억)

✓^{NEW}수요분석: 1억, ^{NEW}사업장변경 분쟁예방지원: 2억, ^{NEW}주거환경 개선: 3억, 지역정착지원: 18억(9개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투자지출 효율화로 절감된 재원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

35.4조원 (+1.7조)

일할 맛 나는 일터

초저출생 반전의 핵심 키(Key)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확대

- ☑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 → 최대 25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 → 20일)
- ☑ 대체인력지원 강화(80 → 120만원)
- ☑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 ☑ 육아휴직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신설(월 20만원)

노동약자 보호 강화

- ☑ “노동약자 지원사업” 신설
- ☑ 이음센터 확충(6 → 10개소)
- ☑ 법률·심리상담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
- ☑ 일터개선·권익보호·복지증진사업 신설
-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용자 등 확대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 ☑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및 기술지도 확대
- ☑ 폭염재난예방 설비지원 신설
- ☑ 공정·설비 개선 및 환기장치 지원 등 확대
- ☑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강화
- ☑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인프라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강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 ☑ 고용센터 중심으로 고용·복지·금융 등
연계 서비스 + 프로그램 강화
- ☑ AI 기술 활용 매칭지원 확대(고용24)
- ☑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안전망 기능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신속 공급

- ☑ K-하이테크 트레이닝 등 신기술 인재양성 내실화
- ☑ 폴리텍을 현장수요 맞춤형 인프라로 강화
- ☑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 신설
- ☑ 조선·뿌리산업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청년:** 쉼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맞춤형
지원(All Care) 강화, 일경험 확대
빈 일자리 업종 매칭 패키지 신설
- ☑ **중장년:** 인턴제·신중년 특화학과 신설,
내일센터 확충 등 재취업지원 강화
- ☑ **장애인:** 장려금 확대 등 장애인고용 예산
역대 최고수준 편성
- ☑ **외국인력:** 훈련·안전·고용관리 대폭 확대
→ 숙련인력으로 양성